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문제해결능력, 좌절인내력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곽혜원
대경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Effects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blem-Solving Ability and Frustration Tolerance on College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s

Hye-Weon Kwak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Daekyeu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문제해결능력, 좌절인내력, 대학생활 적응 정도를 알아보고,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자는 K도에 소재하는 2개 대학 간호학과 학생 169명이었다. 자료수집을 위한 설문조사는 2017년 10월 1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하였고, SPSS 25.0을 사용하여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으며, 각 변수는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과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는 전공만족도($F=12.66,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대학생활적응은 비판적 사고성향($r=.22, p<.01$) 과는 유의한 순상관계가 있었으며, 좌절인내력($r=-.46, p<.001$) 과는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에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비판적 사고성향, 좌절인내력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를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좌절을 극복하고 인내할 수 있는 인내력 향상인성함양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주제어 : 간호, 대학생, 비판적 사고, 문제해결, 좌절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blem-solving ability, frustration tolerance on the college adaptation among nursing students. Participants were asked to complete self-report surveys between October 1, 2017 and October 11, 2017. A total of 169 surveys were analyzed using SPSS 25.0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 multiple regression). Nursing major satisfaction ($F=12.66, p<.001$) were critical factors affecting college adaptati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r=.22, p<.01$), frustration tolerance ($r=-.46, p<.001$) were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college adaptation for nursing student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programs that develop critical thinking, frustration tolerance are necessary for nursing students in order to promote college adaptation.

Key Words : Nursing, University Students, Critical thinking, Problem-solving ability, Frustration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발달해 가는 과도기로 다양한 사회, 심리적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자신의 가치관을 형성하며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춘 사회인으로 성

*Corresponding Author : Hye-Weon Kwak (hwk@tk.ac.kr)

Received June 1, 2018

Accepted August 20, 2018

Revised July 26, 2018

Published August 28, 2018

장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1]. 국내 대학생은 입시위주의 고등학생 생활과는 다른 대학의 다양한 문화 형태에 놓이게 되고 학업, 대인관계, 경제활동의 문제에서 성인으로서의 기대감으로 인해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어, 이로 인해 대학생활 적응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2]. 대부분의 대학생들에게 대학생활은 인간성장의 기회이기도 한 반면, 부담이 되는 시기이며, 대학생들이 이 시기를 어떻게 잘 적응하여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3].

특히 간호대학생은 취업난 속에서 취업의 용이함 때문에 자신의 적성과는 무관하게 간호학을 선택한 경우가 많고, 입학 후에는 전공에 대한 고찰 없이 짜여진 교과과정의 틀 안에서 수업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학과 적응의 안정적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4]. 또한 일반계 다른 학과에 비해 시험이 많아 이로 인한 불안감이 높고[5], 과다한 학습량과 엄격한 규율, 임상실습과 국가고시를 준비해야 하는 부담감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6]. 이와 더불어 2004년부터 시행된 간호교육인증평가로 인해 대학들이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제시한 다양한 교육성과 지표를 간호교육의 목표로 삼게 되면서 학생들이 새로운 교육목표에 대해 준비하고 적응해야 될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어 학생들 적응의 새로운 요소로 탐색해 볼 필요성이 있었다. 현재까지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자기효능감과 분노표현 방식, 사회적지지, 생활스트레스 및 자아탄력성, 감성지능 등의 요인들이 다루어졌으나[7-10], 교육성과 지표에 포함된 요소들과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비판적 사고성향(critical thinking)은 전문적, 개인적 업무에 있어 합리적인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본인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사고를 중요하게 여기며, 이를 사용하려는 개인적인 성향과 습관을 의미한다[11]. 비판적성향이 높은 간호사는 단순한 관례적 절차에 따라 간호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이고 효율적인 간호 제공을 위해 각각의 상황에서 정확한 간호지식에 근거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고, 환자의 증상이나 현재 상태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12]. 비판적 사고에 대한 내용은 우리나라에서 지난 2006년에 실시된 4년제 간호학과 인정평가 시에 평가기준 중 교육성과의 지표로 포함되었다[12]. 간호교육의 주된 목표가 비판적 사고능력의 함양으로 변화되고 있고, 학과 교육

에서도 이를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어 학생들은 이러한 교육패턴에 적응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비판적 사고에 대한 연구로서 비판적 사고능력은 문제해결능력[13], 대학생활 적응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 또한, 비판적 사고성향은 전공만족도와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4], 임상수행능력의 가장 중요한 예측 요인으로 나타나[15] 대학생활 전반에 깊숙이 관여하는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해결능력(problem solving)은 주어진 상황을 탐색한 이후, 체계적인 단계에 따라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많은 수의 대안들을 파생시킬 수 있는 능력과 각각의 대안들이 가져올 결과를 최대화하고 부정적 결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해결책을 선택하는 능력을 포함한다[16].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은 간호교육에서 교과 및 교과외 교육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이 습득해야 할 학습성과의 하나로 문제해결능력을 제시하고 있어 비판적 사고와 함께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선행연구에서 대상자의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합적 임상수행능력의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문제해결능력을 제시하고 있어[15], 매우 중요한 핵심역량 중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간호가 건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진단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둔 학문이기 때문에 문제해결능력의 중요성은 꾸준히 강조되고 있다.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비판적 사고성향과 자기주도학습[17], 창의성[18], 공감능력과 셀프리더십[19], 감성지능[20] 등의 요인들이 다루어지고 있으며,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으로 PBL(Problem-Based Learning)과 시뮬레이션 교육등이 학교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다[15].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문제 발견적 시각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성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문제해결능력의 인지적 요인인 비판적 사고에 영향을 주며, 선행연구에서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은 경우 문제해결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통합적인 문제해결능력에 필요한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18].

한편, 기존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 변인 중 간호대학생의 좌절에 대해 다른 연구는 보고된 바가 없는데, 좌절의 사전적 의미는 '마음이나 기운이 꺾이고, 어떤 계획이나 일이 중간에 실패로 돌아감'을 의미하며, 인내력은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힘을 말한다[21].

최근 상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것은 높은 스트레스 등으로 좌절을 경험 하는 사람이 많은 것과 무관하지 않은데, 특히 좌절감의 경우 자살생각에도 유의미한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22] 이러한 좌절을 견뎌내는 힘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내력 부족에 대한 연구에는 인내력 부족이 삶의 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23],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대학생활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24]. 그러나 좌절인내력이 대학생들의 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대부분의 간호대학생들의 적응 관련 연구들이 비판적 사고성향이나 문제해결능력의 경우 주로 전 학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15] 실제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은 임상실습이 이루어지기 전인 1,2 학년 시기에 다양한 스트레스로 인해 대학생활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5]. 저학년 간호대학생들은 대학의 문화에 익숙해 지기도 전에 해부·생리학, 약리학 등의 기초지식, 기본간호학 등의 전공 교과목과 같은 방대한 교육과정을 습득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26]. 특히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능력을 기르기 위한 훈련이 낮은 저학년들에게는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다. 낮은 환경 변화에 대한 스트레스 시의 적절한 대처는 적응을 위한 효과적인 중재 방식이므로[27] 간호대학 저학년을 대상으로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활에 대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간호대학 저학년(1,2학년)을 대상으로 비판적 사고성향, 문제해결능력, 좌절인내력 및 대학생활 적응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의 영향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대학생활의 안정적 적응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문제해결능력, 좌절인내력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문제해결능력, 좌절인내력과 대학생활 적응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 문제해결능력, 좌절인내력과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문제해결능력, 좌절인내력과 대학생활 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문제해결능력, 좌절인내력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K도에 소재한 2개 4년제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1, 2학년 간호대학생을 편의표집 하였으며,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기로 서면에 동의한 17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 수는 표본크기 산출은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고,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유의수준 $\alpha=.05$, 효과크기(effect size)는 회귀분석의 중간크기로 .15, 검정력(power)는 80%로 설정하고, 탈락율 10%를 고려한 최소 표본 수 150명을 충족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의 참여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음과 설문지 작성 중 언제든지 연구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비판적 사고성향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Yoon[28]이 개발한 27문항을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신중성 4문항, 지적호기심 5문항, 체계성 3문항, 자신감 4문항, 건전한 회의성 4문항과 객관성 3문항, 지적공정성 4문항의 총 7개의 하위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개발당시 Cronbach's α 는 .8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8이었다.

2.3.2 문제해결능력

문제해결능력은 한국교육개발원[29]에서 개발한 생애능력 측정도구 중에서 대학생/성인용 문제해결능력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원인분석(10문항), 수행평가(10문항), 문제의 명료화(5문항), 계획/실행(10문항), 대안개발(10문항)의 총 5개 능력요소로 구성되고, 이는 다시 9개 하위요소로 구분되어 있다. 능력요소별 하위요소는 원인분석-정보수집(5문항), 분석능력(5문항), 계획/실행-기획력(5문항), 문제의 명료화-문제인식(5문항), 실행과 모험 감수(5문항), 수행평가-평가(5문항), 대안개발-확산적 사고(5문항), 의사결정(5문항)과 피드백(5문항) 등을 측정하고 있는 총 45문항이다. 문항은 ‘매우 자주’ 5점부터, ‘자주’ 4점, ‘보통’ 3점, ‘드물게’ 2점, ‘매우 드물게’ 1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해결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은 .94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값은 .92으로 나타났다.

2.3.3 좌절인내력

Harrington[30]이 개발한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REBT) 이론을 적용하여 좌절 인내력 부족(intolerance of frustration)을 측정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총 28문항, 총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4개의 하위 요인은 보상지연 및 부당함에 대한 인내력 부족(Entitlement), 불편감 인내력 부족(Discomfort Intolerance), 성취욕구 좌절에 대한 인내력 부족(Achievement), 정서적 인내력 부족(Emotional intolerance)으로 각 요인별로 7개의 문항이 포함된다. 각 문항은 1점부터(전혀 아니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좌절인내력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Harrington[3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92이었다.

2.3.4 대학생활적응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척도는 Baker와 Siryk[31]이 자기보고를 통해서 대학생활의 적응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고안한 설문지인 대학생활 적응척도(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를 Hyun[32]이 번안한 67문항의 척도 중에서 Kim[33]이 사용한 대학생활의 일반적인 스트레스와 신체화 장애수준을 측정하는 개인-정서 적응요인, 대학에서의 학업과 관련

된 생활, 수업 및 시험 등에 적응하는 수준을 측정하는 학업 적응 요인의 총 39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24문항을 역문항으로 환산하였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9점까지의 9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을 잘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Kim[2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7이었다.

2.4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2017년 10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총 11일간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대상 대학의 간호학과장에게 연구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승인을 받은 후 간호대학생들이 직접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총 175부를 배부하고 172부를 회수하여 회수율은 98%이었으며, 이중 불완전 응답을 제외한 169부를 자료 분석 하였다.

2.5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는 SPSS WI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주요변수들의 정도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 생활 적응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한 후 사후 검정으로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각 변수들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으로 분석하였으며,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Multiple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은 남자 30명(17.8%), 여자 139명(82.2%)이었으며, 학년은 1학년이 75명(44.4%), 2학년이 94명(55.6%)이었다. 종교는 무교가 110명(65.1%)로 가장 많았으며, 기독교 29명(17.2%), 불교 20명(11.8%) 순이었다. 거주형태는 부모와 동거가 87명(51.5%), 자취가 68명(40.2%)이었다.

간호학 지원 동기는 ‘취업률이 높아서’라는 응답이 77명(45.6%)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위의 권유’ 38명

(22.5%), '불사정신' 28명(16.6%) 순이었다. 간호학 전공 만족도는 '만족'이 69명(40.8%), '보통'은 65명(38.5%), '매우 만족'은 19명(11.2%)이었다. 학업 성적은 3.0~3.4가 65명(38.5%)으로 가장 많았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tion (N=169)

Characteristic	Categories	n(%)
Gender	Female	139(82.2)
	Male	30(17.8)
Grade	1st	75(44.4)
	2nd	94(55.6)
Religion	Christian	29(17.2)
	Catholic	10(5.9)
	Buddhism	20(11.8)
	None	110(65.1)
Residence type	live with parents	87(51.5)
	live with single parents	11(6.5)
	live with grandparents or relation	3(1.8)
	Live alone	68(40.2)
Motivation of application	Grade in high school	6(3.6)
	Recommendation	38(22.5)
	Public spirit	28(16.6)
	Employment rate	77(45.5)
	Impression at hospital	20(11.8)
Satisfaction with nursing as a major	Very satisfied	19(11.2)
	Satisfied	69(40.8)
	Moderate	65(38.5)
	Dissatisfied	14(8.3)
	Very unsatisfied	2(1.2)
Academic achievement (grade)	<2.5	11(6.5)
	2.5~3.0	45(26.6)
	3.0~3.4	65(38.5)
	3.5~4.0	41(24.3)
	4.1~4.5	7(4.1)

3.2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 문제해결능력, 좌절인내력 및 대학생활 적응 정도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 점수, 문제해결능력, 좌절인내력 및 대학생활 적응은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3.33±0.43점으로 나타났다. 문제해결능력은 3.28±0.42점이었으며, 좌절인내력은 2.91±0.57이었다. 대학생활 적응은 9점 만점에 평균 4.67±0.89점이었다.

Table 2. Degree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blem-solving ability, Frustration tolerance and college adaptation (N=169)

Categories	Mean±SD	Min	Max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3.33±0.43	2.25	4.85
Problem-solving ability	3.28±0.42	2.33	4.84
Frustration tolerance	2.91±0.57	1.14	4.07
College adaptation	4.67±0.89	2.51	7.82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 문제해결능력, 좌절인내력 및 대학생활 적응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 문제해결능력, 좌절인내력 및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은 종교(F=4.31, $p=.006$), 학업성적(F=2.71, $p=.032$)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문제해결능력은 거주형태(F=3.90, $p=.010$)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은 간호학 지원동기(F=2.66, $p=.034$), 간호학 전공만족도(F=12.66,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으로 Scheff test를 하였다.

3.4 비판적 사고성향, 문제해결능력, 좌절인내력 및 대학생활 적응간의 관계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 문제해결방식, 좌절인내력 및 대학생활 적응 간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대학생활 적응은 비판적 사고성향($r=.22$,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였으며, 좌절인내력($r=-.46$,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관계를 보였으며 아래 Table 4와 같다.

Table 4. Correlations of the variables (N=169)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blem-solving ability	Frustration tolerance
	<i>r</i> (<i>p</i>)		
Problem-solving ability	.58** (.000)	1	
Frustration tolerance	.10 (.157)	.13 (.072)	
College adaptation	.22* (.003)	.13 (.088)	-.46** (.000)

* $p<.01$, ** $p<.001$

Table 3. Adaptation to college life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N=169)

Characteristic	Categorie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blem-solving ability		Frustration tolerance		College adaptation	
		Mean ±SD	t/F(p) Scheffe	Mean ±SD	t/F(p) Scheffe	Mean ±SD	t/F(p) Scheffe	Mean ±SD	t/F(p) Scheffe
Gender	Female	3.32±0.43	0.26	3.30±0.41	-1.56	2.89±0.59	1.00	4.66±0.89	0.17
	Male	3.35±0.43	(.796)	3.16±0.44	(.126)	3.00±0.50	(.321)	4.69±0.89	(.864)
Grade	1st	3.31±0.41	0.21	3.29±0.40	0.13	2.92±0.62	0.00	4.61±0.96	0.53
	2nd	3.34±0.46	(.648)	3.27±0.44	(.711)	2.91±0.53	(.975)	4.71±0.83	(.468)
Religion	Christian ^a	3.55±0.44	4.31**	3.39±0.47	0.89	2.97±0.66	1.01	4.70±1.15	0.27
	Catholic ^b	3.22±0.27	(.006)	3.28±0.34	(.444)	3.12±0.34	(.388)	4.45±0.53	(.846)
	Buddhism ^c	3.45±0.42	a>d	3.22±0.54		2.76±0.61		4.60±0.89	
	None ^d	3.26±0.43		3.26±0.39		2.91±0.56		4.69±0.85	
Residence type	live with parents ^a	3.36±0.40	0.91 (.435)	3.33±0.42	3.90* (.010)	2.94±0.55	0.53 (.660)	4.72±0.89	0.58 (.627)
	live with single parents ^b	3.25±0.32		3.54±0.48	b>d	3.06±0.75		4.41±1.21	
	live with grandparents or relation ^c	3.64±0.45		3.35±0.17		2.89±0.66		4.97±0.29	
	Live alone ^d	3.29±0.48		3.16±0.40		2.86±0.57		4.62±0.86	
Motivation of application	Grade in high school	3.25±0.54	1.47 (.213)	3.31±0.36	0.30 (.873)	3.11±0.35	1.20 (.310)	4.76±0.87	2.66* (.034)
	Recommendation	3.41±0.50		3.34±0.40		2.98±0.58		4.44±0.86	
	Public spirit	3.36±0.44		3.26±0.54		2.71±0.57		5.06±0.97	
	Employment rate	3.34±0.36		3.25±0.41		2.94±0.54		4.70±0.91	
	Impression at hospital	3.13±0.50		3.27±0.35		2.89±0.72		4.38±0.55	
Satisfaction with nursing as a major	Very satisfied ^f	3.43±0.46	2.28	3.37±0.45	2.30	2.77±0.66	1.70	5.58±1.07	12.66*** (.000)
	Satisfied ^g	3.41±0.44	(.062)	3.30±0.45	(.060)	2.83±0.52	(.151)	4.87±0.73	
	Moderate ^e	3.21±0.35		3.17±0.35		3.02±0.52		4.31±0.78	a>b>c>d, e
	Dissatisfied ^d	3.34±0.62		3.45±0.45		2.93±0.84		4.14±0.68	
	Very unsatisfied ^g	3.57±0.44		3.67±0.70		3.44±0.17		4.10±0.43	
Academic achievement (grade)	<2.5	3.40±0.52	2.71* (.032)	3.14±0.44	2.28 (.063)	3.11±0.49	0.47 (.753)	4.29±0.65	2.26 (.065)
	2.5~3.0	3.17±0.37		3.15±0.42		2.85±0.59		4.49±0.81	
	3.0~3.4	3.35±0.44		3.32±0.42		2.91±0.60		4.47±0.90	
	3.5~4.0	3.41±0.44		3.33±0.39		2.94±0.54		4.74±0.89	
	4.1~4.5	3.59±0.39		3.53±0.43		2.87±0.59		5.39±1.21	

*p<.05, **p<.01, ***p<.001

3.5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문제해결능력, 좌절인내력이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아래 Table 5와 같다. 회귀분석 시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결과를 도출한 변수는 통제하였으며, 공차한계(Tolerance)가 .685~.980으로 0.1이상이고, 분산팽창인자(VIF)는 1.021~1.438로 기준값인 10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성선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 분석결과 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23.36, p<.001). 모형의 설명력은 수정된 결정계수 Adjustive R² 이 .28으로 나타나, 이들 변수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설명력은 28%이었다.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비판적 사고성향(β=.25, p=.002)과 좌절인내력(β=-.50, p<.001)으로 나타났고, 좌절인내력이 가장 큰 영향요인이었다.

Table 5. Variables influencing the adaptation to the college life

Variable	B	SE	β	t	p
Constant	4.85	.555		8.749	.000**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510	.164	.250	3.116	.002*
Problem-solving ability	.119	.169	.057	.704	.482
Frustration tolerance	-.779	.102	-.501	-7.609	.000**
R ² =.29 Adjustive R ² =.28 F=23.36 p=.000**					

*p<.01, **p<.001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성향, 문제해결능력, 좌절인내력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도를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행되었다.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5점 만점에 평균 3.33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Kim[34]의 연구 3.67점과 Lee[35]의 3.47점보다 낮았는데, 비판적 사고는 비판적으로 사고하려는 동기, 태도 교육을 통해 향상되는 것인데[1], Kim[34]과 Lee[35]의 연구 대상자들은 비판적 사고에 대한 교육기간이 비교적 긴 3.4학년이었으나 본 연구대상자들은 비판적 사고에 대한 교육기간이 짧은 저학년 대상자들이었으므로 교육기회의 차이에서 기인한 결과로 사료된다. 문제해결능력을 높이는 통합교육과정은 비판적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28] 간호교육 시 비판적 사고성향을 기를 수 있도록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종교가 기독교인 학생이 무교인 학생에 비해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기독교, 가톨릭, 불교, 기타 순으로 종교에 따라 비판적 사고성향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고한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36]. 그러나 비판적 사고성향의 경우 종교유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되고 있어[1] 이에 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문제해결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28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Lee[35]의 연구 3.45점과 Yang[18]의 연구 3.49점보다 낮았으나 보건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37]의 3.16점 보다는 높은 점수이었다.

문제해결능력의 경우 비판적 사고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데[18] 본 대상자들의 경우 비판적 사고 교육기간이 비교적 짧은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문제해결능력 점수도 낮게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보건대학생들보다 문제해결능력이 높게 나온 것은 간호학과 교과과정 속에서 문제해결능력을 요하는 과목이 많아 이에 대해 타과에 비해 충분히 학습이 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빠르게 변화하는 복잡한 의료 환경 속에서 안전하고 전문적인 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훌륭한 문제해결자로서의

역량을 갖춘 간호사가 필요한데, 이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 전략과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 문제를 해결해야 할 상황에서 비판적 사고성향을 적극 활용하여 접근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임상 상황 시뮬레이션교육, 문제중심 학습법(Problem-Based Learning), 팀기반 학습법(Team-Based Learning) 등을 활용한 여러 가지 교육기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좌절인내력은 5점 만점에 2.91점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좌절인내력을 측정하는 연구가 없어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본 연구대상자의 좌절인내력은 중간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좌절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에서[38] 좌절극복을 위해서는 학교의 정책적 도움이 필요하고, 적응을 직접 도와줄 조력자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본 연구에서 좌절인내력이 학교적응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대학생들의 학교적응을 위해 지도교수, 선배들을 활용한 좌절극복 프로그램이나 멘토 멘티 제도를 활성화 하는 등 좌절 극복을 위한 기관의 정책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활 적응정도는 평균 9점 만점에 4.67점으로 나타나 중간이상의 적응정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Yi[39]의 연구에서의 5.25점 보다 낮은 점수이었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처음 독립하여 혼자 기숙사나 자취를 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이러한 부분이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적응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된다. 타 지역에서 온 학생들의 학교적응을 도울 수 있는 멘토 프로그램이나 상담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전공에 만족한 학생이 불만족인 학생보다 대학생활 적응 정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im[1]의 연구에서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 수준이 높았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전공에 대한 만족도와 학업 성적이 높은 학생은 진로에 대한 목표의식이 명확하고, 대학생활 및 전공에 대한 긍정적인 경향을 보이는 특성이 있어 대학생활의 적응을 높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다양한 교수법 적용 및 교내외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전공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선행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들의 학년, 학과지원동기, 학업성적에 따라 대학생활 적응 정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39]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반복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의 영향요인은 비판적 사고성향, 좌절인내력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두 변수가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28%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 23.36, p<.001$). 이 중 좌절인내력 정도가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규명되었다. 이처럼 좌절 인내력이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밝혀졌으나 이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으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의 주요 영향요인이 비판적 사고성향과 좌절인내력임이 본 연구에서 규명되었으므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성향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좌절인내력을 기를 수 있는 인성함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시행 되었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향후 연구의 표집단위를 확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 1, 2학년생을 대상으로 비판적 사고성향, 문제해결능력, 좌절인내력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도를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점수는 9점 만점에 4.67 점으로 나타나 중간정도의 적응도를 보였다.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비판적 사고성향, 좌절인내력으로 나타났고, 이들 변수들이 대학생활 적응정도를 28% 설명하였다. 이중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는 요인은 좌절인내력이 확인되었으며, 기존에 잘 다루어 지지 않은 좌절인내력과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련성을 규명한 것이 본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좌절인내력을 높인다면 대학생의 적응능력을 높이고, 결국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좌절인내력을 기를 수 있는 인성함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대상 지역 및 관련 학교, 학년을 고루 선정, 분포시켜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는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좌절

인내력과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에 대해 규명하는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 [1] M. H. Lim. (2016). Effects of character,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on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8), 560-568.
DOI: 10.5762/KAIS.2016.17.8.560
- [2] J. H. Park. (2015). A study on examining the mediating effect of stress upon the relationships between irrational beliefs, positive, negative emotions and adaption to school life of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2(6), 161-185.
- [3] E. A. Kim & K. S. Jang. (2012). Developing a prediction model regarding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to college lif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Nursing Education*, 18(2), 312-322.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2.18.2.312>
- [4] K. H. Yang, J. R. Lee & B. N. Park. (2012). Factors affecting adaptation to school life of freshmen enrolled in nursing at a junior colleg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8(1), 5-13.
- [5] S. U. Yoon & Y. S. Kwon. (2015). Relationship between test anxiety and self-esteem in partial health related department convergenc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6(5), 91-98.
- [6] M. H. Jeong & M. A. Shin.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 - esteem and satisfaction in major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2(2), 170-177.
- [7] S. O. Choi, J. K. Park & S. H. Kim. (2015). Factors influencing the adaptation to the college lif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1(2), 182-189.
DOI: 10.5977/jkasne.2015.21.2.182
- [8] W. H. Jun, M. J. Jo & H. J. Na. (2015). Relationships between anger expression, social supports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among nursing students. *The Korean Contents Society*, 15(3), 219-228.
DOI: 10.5392/jkca.2015.15.03.219
- [9] H. Y. Jung. (2016). The convergence influence of life stress, depression and ego resiliency on college life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 Convergence*, 14(7), 259-268.
- [10] S. Y. Yun & S. H. Min. (2014).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spiritual well-being on college adjustment in major of nursing stude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12), 395-403.
- [11] N. Facione, P. Facione & M. Sanchez. (1994). Critical-thinking disposition as a measure of competent clinical judgment: the development of the california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ventory. *The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33(8), 345-350.
DOI : <http://doi.org/10.5392/JKCA.2016.16.05.612>
- [12] K. R. Shin, J. Y. Ha & K. H. Kim. (2005). A longitudinal study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ritical thinking skills in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5(2), 382-389.
- [13] E. Y. Choi & J. Y. Kim. (2007). The relationship of core competencies(problem solving ability, communication ability,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to critical thinking.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14(4), 412-419.
- [14] Y. S. Kim & E. J. Oh. (2016). Relationship among Emotional Intelligence, Critical thinking and major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academia-industrial technology*, 17(7), 103-111.
- [15] S. K. Chaung. (2011).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blem Solving Ability,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18(1), 71-78.
- [16] P. P. Heppner & C. H. Peterson. (1982). The development and implications of a personal problem solving invent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9(1), 66-75.
- [17] D. H. Kim, J. Y. Park & N. Y. Lee. (2012). Factors influencing problem solving ability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4(3), 1551-1563.
- [18] S. H. Yang & I. O. Sim. (2016). Relationship between problem solving abilit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reativity, self efficacy and nursing process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6(5), 612-622.
- [19] H. J. Kim, G. J. Gun & S. H. Lee. (2017). Factors influencing problem solving abilities of nursing students.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15(4), 295-307.
DOI : [10.14400/JDC.2017.15.4.295](http://doi.org/10.14400/JDC.2017.15.4.295)
- [20] S. H. Han. (2017). Factors affecting problem solving ability among nursing students. *The Convergent Research Society Among Humanities, Sociology, Science and Technology*, 7(5), 245-254.
DOI : [10.14257/ajmahs.2017.05.53](http://doi.org/10.14257/ajmahs.2017.05.53)
- [21]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2018). A standard Korean dictionary.
- [22] S. H. Kim, M. K. Kim & H. O. Back. (2017). The effects of the self-esteem and frustration on suicidal ideation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Welfare for The Correction*, 46(1), 1-18.
- [23] M. K. Lee, H. M. Seong, E. J. Kim, S. I. Jee & S. S. Ahn. (2016). The effect of intolerance to uncertainty on life satisfaction in university students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work volition and work hope -.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29(3), 141-159.
- [24] K. H. Du. (2009). The effect of self-efficacy, intolerance of uncertaint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career decision level: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achievement goal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1(2), 501-519.
- [25] H. Y. Kang & E. Y. Choi. (2015). Stress, stress coping methods, and college adjustment according to behavioral styles in freshma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1(3), 289-297.
- [26] S. Y. Min. (2006). Adjustment experiences of students in nursing educ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15(4), 409-419.
- [27] E. A. Kim & K. I. Park. (2014). Factor affecting adjustment of freshmen nursing students to college lif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2), 234-243.
- [28] J. Yun. (2004).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for the measurement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 in nurs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Seoul.
- [29] Korean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life-skills: communication, problem solving, and self-directed learning. RR2003-15-03, Korean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
- [30] N. Harrington. (2005). The frustration discomfort scale: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properties. *Clinical Psychology & Psychotherapy*, 12(5), 374-387.
- [31] R. W. Baker & B. Siryk. (1984). Measuring academic motivation of matriculating college freshmen.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25(5), 459-464.
- [32] J. W. Hyun. (1992). *The effect of perfectionism and evaluative threat on the performance of task*. Unpublished master's thesis, Yeonsei University of

Korea, Seoul.

- [33] J. H. Kim. (2016). Relationship Between Life Stress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Mediating Effects of Self-control and Health Promoting Lifestyle. *Journal of the Korea academy of psychological type*, 17(1), 81-100.
- [34] S. H. Kim, H. A. Nam & M. O. Kim. (2014).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blem Solving Process, and Simulation-Based Assessment of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in Pediatric Nursing.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0(4), 294-303.
- [35] O. S. Lee & Y. G. Noh. (2017). The relationship among emotional intellig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problem solving skills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12), 349-358.
DOI: 10.14400/JDC.2017.15.12.349
- [36] S. A. Yang & D. Y. Jung. (2004). A Study on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bout Student Nurs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Adult Nursing*, 16(1), 156-165.
- [37] H. Ko, M. H. Kang & E. B. Ko. (2016). A study on the effect of creative problem solving class on routine creativity and problem solving ability of university students of health care division.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6(1), 145-167.
- [38] M. H. Kim. (2014). *The Frustration Experience of Academically Fallen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 [39] J. E. Yi & H. W. Kwak. (2016). Rela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harmony, stress coping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11), 527-537.
DOI: 10.14400/JDC.2016.14.11.527

곽혜원(Kwak, Hye Weon)

[정회원]



- 2015년 2월 : 계명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6년 9월 ~ 현재 : 대경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대인관계, 신체활동
- E-Mail : thinkss1008@naver.com